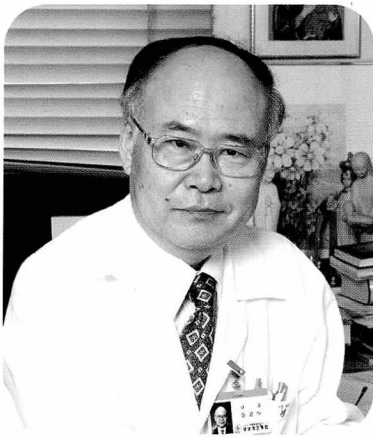


아시아에서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한국에서의 경험

Hospice palliative care in Asia and the
experience in Korea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경식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일본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그 나라의 극히 일부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호스피스가 강력한 기독교 배경을 가진 서구국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개념을 아시아 국가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문화와 종교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아시아에서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약제의 가용성 문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전문가와 그 교육과정의 부재, 호스피스 관련법의 미 제정 등이 혼란 문제이며 호스피스 발전의 주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네트워크가 설립되었고 이 지역 호스피스의 발전은 물론 지역 문화에 걸맞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발전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의 14개 지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교육체계와 전문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의 여러 나라에 호스피스가 발전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한국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1964년 호주에서 온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의 수녀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현재 약 125개의 호스피스 기관이 설립되어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나 말기 암 환자의 7.5%만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 보건 복지부의 주도로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행되었고 현재 호스피스 법이 정부에 의하여 준비되고 있다.

